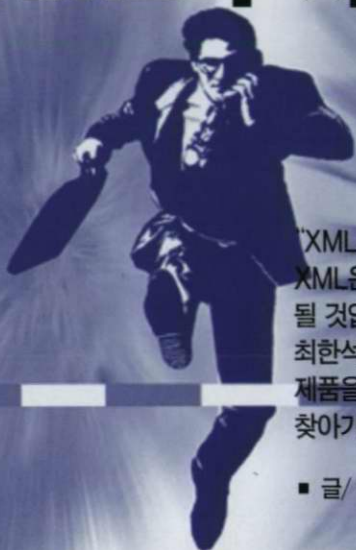


XML과 지식관리시스템으로 승부한다



“XML과 지식관리시스템 분야의 최고 기업을 지향합니다. XML은 문서 유통의 국제 표준으로 향후 인터넷 비즈니스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XML과 관련된 제품 개발에 몰두하는 (주)한국지식웨어의 최한석 연구소장의 말이다. XML 및 지식관리시스템 관련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주)한국지식웨어를 찾아가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글/ 박민식 기자

전

문화를 지향하는 한국지식웨어(대표 김준수)는 올해 초 케이오테크라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전문기업으로 시작하여 최근 지식관리시스템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현재 이름으로 변경한 업체이다. 한국지식웨어의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최한석 소장은 현재 목포대학교 정보공학부 교수로 XML 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최소장은 “한국지식웨어가 주력하고 있는 XML 분야는 기존 인터넷 표준인 하이퍼텍스 마크업랭귀지(HTML)를 대체할 차세대 언어로 그동안 인터넷 사용자들이 느꼈던 정보검색의 지연이나 오류, 문서유통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소개했다.

그는 덧붙여 “현재의 문서 형태는 유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관의 논문이 아래한글로 작성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아래한글 S/W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XML을 지원하게 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문서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자적인 XML 솔루션 보유

(주)한국지식웨어가 보유한 XML 통합 관리시스템은



▲ 최한석 소장은 “XML/EDI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게 XML 저작 도구와 저장관리시스템으로 나누어진 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저작 도구는 XML 통합 에디터인 XEditor, 문서변환기인 XConverter, 스타일시트 편집기 XStyler로, 저장관리시스템은 구조 문서 저장관리기인 XRMS, 구조 문서 검색기인 XSearch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제품은 개별적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최소장은 “XML 통합 관리 시스템은 기업 내에 분산된 각종 XML 문서와 정보들을 단일한 장소에서 관리해주는 제품으로 전자상거래, 지식관리시스템 등 각종 정보기술 시스템간 통합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축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다른 업체들은 대용량과 한글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주)한국지식웨어의 제품은 대용량의 XML문서와 한글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지식웨어의 통합 관리 시스템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가능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스템 자원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지식관리시스템 솔루션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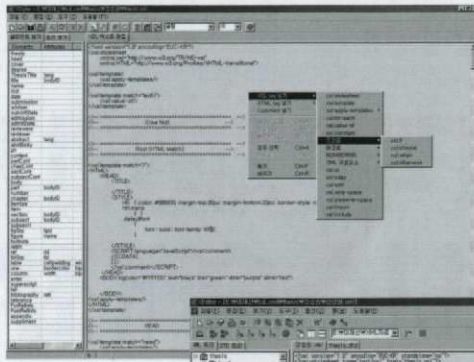
한국지식웨어는 자체 개발한 XML 제품과 더불어 지식관리시스템 제품으로 유명한 데이터웨어 테크놀로지(Dataware Technologies)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웨어 테크놀로지의 검색엔진은 국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식관리시스템은 SKC&C가 올해 말 계약이 끝나는 대로 한국지식웨어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식웨어는 지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본격적인 인터넷 비즈니스를 펼칠 예정이다. 최소장은 "현재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국내의 모든 자료를 수집한 상태로 올해 말까지 사이트 구축을 마쳐 국내에서 가장 유용한 사이트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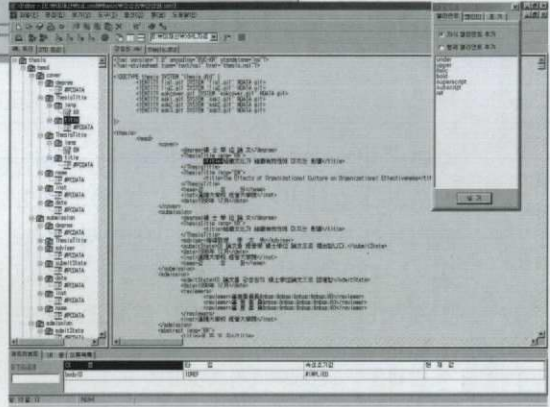
자금 유치와 신기술 개발 박차

현재 한국지식웨어는 XML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우선 아래한글문서를 XML로 변환하고 구조 검색까지 가능케 하는 한양대 도서관 작업을 비롯해 서울대 농대 도서관, 전문연구정보센터 5개처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4개처의 연구물, 논문, 보고서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XML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최소장은 "최근에는 SK텔레콤의 대형 지식관리시스템 프로젝트를 SKC&C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축이 완료되면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관리 사이트로 자리잡



〈그림〉 한국지식웨어의 'XML 관리 시스템' 실행 화면들



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실대, 고려대 등과 연계해 기존 EDI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XML/EDI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최소장은 "기존 전자상거래 EDI의 경우 한번 만들어진 문서 포맷의 수정이 쉽지 않고 거래 전에 품목과 데이터를 서로 맞춰야 하는 경직성을 갖고 있는 반면 XML은 확장언어로 태크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등 유연성을 띠고 있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설명하면서, "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뿐만아니라 외국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XML/EDI 제품 개발을 위해 정보통신부로부터 산업기술개발사업 자금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또한 한국지식웨어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 작업을 위해 지식관리시스템 인력을 현재 12명에서 20명으로 확충하고 안태형 전 SKC&C 사장을 고문으로 영입을 추진중이며,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 유치로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웨어는 올해 예상 매출을 5억, 2000년에는 30억으로 잡고 있다. 